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35. 파두: 리스본 스타일

우리도 줄을 섰다. 워낙 소규모 공연장이라 관객도 얼마 되지 않아 줄은 금방 줄어들었다. 핸드폰에 내려 받은 입장권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 갔다. 조그만 로비 같은 공간이 나오고 그 안쪽으로 커뮤니티 공연장 안에 무대가 있었다. 로비에는 검은 수염을 기른 데치가 큰 남자가 들어오는 관객들에게 엑서체럴 생긴 안내문과 함께 작은 유리잔에 붉은 와인을 따라 한 잔씩 건네주고 있었다. 유쾌하고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답을 해 준다. 그 분위기가 이 소규모 공연장의 사장님 같아 보였다. 우리도 와인을 한 잔씩 받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이식 의자를 나란히 배치한 공연장은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더 작았다. 가운데 통로를 비워 두고 양쪽으로 배치한 의자들이 다 합쳐도 30석이 채 안 되어 보였다. 먼저 오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서 앉는 식인데 이미 앞자리는 다 채워져 있어서 우리는 뒤쪽에 있는 좌석을 잡고 앉았다. 하도 공연장이 작아서 조명을 밝힌 무대를 보기엔 아무 지장이 없었다.

무대 위에는 기타 연주자 두 명이 가운데 작은 테이블을 하나 놓고 양쪽으로 앉아 있었다. 오른쪽 기타는 보통 흔한 모양인데 왼쪽의 기타는 서양배 모양으로 둥그렇게 생겼다. 아마 그것이 포르투갈 '기따라' 인가 보다. 기타 연주자들은 가끔 기타선을 맹기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다. R과 나는 자리를 잡고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셔 보았다. 포트 와인은 아니고 그냥 붉은 와인이었다. 무대 벽에는 파두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파두가 크게 리스본 스타일과 코임브라 스타일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다.

곧 조명이 꺼지더니 무대가 불게 변했다. 기타 연주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기타줄을 뜯는다. 왼쪽으로부터 젊은 여자가 한 명 등장했다. 머리를 위로 바짝 틀어 올리

고 검은 드레스를 입었으며 어깨에는 솔을 걸쳤다. 두 손을 모으더니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한다. 이것이 리스본 스타일 파두라고 안내문에 써 있었다. 리스본의 뒷골목 서민들 삶 속에서 펴져 나간 파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가수는 바다에 남자를 보내고 한없이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의 노래를 부르려나? 우리는 아까 호텔에서 들었던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검은 둑배' 와 비슷한 노래를 기대했다.

젊은 여자가 수는 잠깐 심각한 얼굴로 애처롭게 노래를 불렀다. 슬픈 노래인 것은 알겠는데 별로 슬프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가수가 너무 옛되고 통통한 얼굴을 하고 있어 그런가?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는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에 사람의 심장을 훔쳤을 것 같은 빛나는 검은 눈동자의 미인이었다. 나이도 40대 정도 되어 보였고 검은 눈밑에 얇게 드리운 그림자까지 애원하듯 호소하듯 부르는 파두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외모였다. 무대에 올라온 이 아가씨는 매우 밝고 멋진 표정이라 우리는 그녀가 부르는 슬픈 노래에 잘 집중할 수가 없었다.

노래 한 곡이 끝나더니 기타 연주가 끌라졌다. 가수가 갑자기 몸을 휙 돌리더니 허리춤에 두 손을 쳐 넣으면서 관객들에게 웅크를 한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계속해서 빠르고 가벼운 곡조의 기타 연주에 맞추어 유쾌한 느낌의 노래를 시작했다. 포르투갈어 가사는 전혀 못 알아 들겠지만 뭔가 옆사람에게 수다를 떠는 듯한 노래였다. 가수가 허공을 보면서 산대질을 하기도 하고 어깨를 움찔거리며 손바닥을 펴 보이기도 하는 등 갖은 방정(?)을 다 펼면서 노래를 계속 했다. 우리는 이 가수가 리스본 서민층 아낙네 모습과 행동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했지만 이미 가슴을 뛰흔드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파두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그녀의 어설픈 노래나 연기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리스본 스타일 파두가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파두 공연이나 설부른 판단은 하지 말자.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애꿎은 와인만 다 마셔 버렸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맙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경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 - 3789 LA

(714) 224 - 8394 OC

헤어라인

Beauty Salon

얼바인 미셀신이
플러튼에 오픈

- 커트
- 디지털 펌
- 셋팅 펌
- 토탈컬러

Beauty INSIDE
KOUTGRAND
OPENING

<상담&예약>

714.600.6235

10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이광역 내과 : 일반내과 전문의 (JOHN K. LEE, M.D.) 노인과 : 메디케어 전문의

이민국(USCIS)
신체검사
자정병원

건강 검진 스페셜

\$149

1. 내과 전문의 상담, 진찰 및 치료 (1회)

2. 종합혈액검사:

혈당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종합콜레스테롤검사, 중성지방검사, 전해질검사
혈중단백질검사, 칼슘검사, 빈혈검사, 백혈구검사
적혈구검사, 혈소판검사, 요산검사, 지방간검사
당화혈색소(HbA1c)

3. 정밀소변검사:

Color, Character, Specific Gravity, PH, Glucose, RBC,
Protein Ketones, Blood, Urobilinogen, Nitrite, WBC,
Bilirubin, Epithelial Cells, Bacteria, Casts, Crystals



각종보험(PPO), 메디케어 플랜 받습니다.

John K. Lee, M.D.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
미국 노인과 보드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CAQ in Geriatric Medicine
Member,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Member, American Geriatrics Society
Member,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진료시간: 월 ~ 금: 8:30am ~ 5:00pm 토, 일: Closed

Tel: 714.879.8700
400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